

영광 혹은 상처의 초상: 발레리나의 자서전 읽기*

노영재**

I. 서론	IV. 발레리나 자서전의 의미와 가치
II. 자서전 이론과 변천	V. 결론
III. 『Dancing on My Grave』와 『Holding On to the Air』 분석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서양의 대표적 고전춤인 발레는 무용을 독립적 예술장르로 격상시켰으며 수많은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길게는 수세기의 역사를 지닌 고전발레부터 지난 세기 현대 무용계의 큰 주목을 받아온 작품들은 레퍼토리화되어 개인 무용단 혹은 전문발레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공연되며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작품을 제작한 안무가, 기억되어야 하는 훌륭한 무용수들이 있고, 그들을 함께 묶어준 무용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작품, 인물, 시대적 배경 대부분이 무용사 속에 연대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독자들은 이를 통해 소중한 정보와 풍부한 예술적 가치를 향유하게 된다.

20세기 이후 현대예술의 발전 속에서 무용사와 더불어 무용학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문헌 자료로는 무용계를 발전시킨 인물을 중심으로 한 자서전, 전기, 그리고 공연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긴 평문집 등이 있다. 특히 자서전과 전기는 무용사에서 모두 담을 수 없었던 개인적 경험, 기억, 일화 등이 점철되어 있으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대상이 되는 인물이 살아왔던 시대와 헌신했던 예술세계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독특한 경험을 가능케 한다. 발레는 무용예술에서 오랜 역사를 지녔고 오늘날에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시대별 유명 안무가 뿐 아니라 현재 주목받는 무용수들에 이르기까지 자전적, 전기적 서적들이 어느 무용장르보다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전기의 경우 이미 복수의 저자들이 한 유명 무용인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기도 하며 다양한 시각에서 읽을거리를 제공해왔다. 자료 발굴의 측면에서 이러한 문헌들은 학문 연구에 폭넓게 기여하기도 하지만, 자서전이나 전기의 장르 특성상 한 인물의 업적이 미화나 생략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또한 좁게는 서술 구조나 담화 양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709)

**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balletyj@gmail.com

식을 통해 개인 혹은 남녀의 특성부터, 넓게는 인간관계나 경력의 흐름을 통해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게도 한다.

본 연구는 발레리나의 자서전 연구를 통해 일종의 ‘문학작품’으로 치환된 무용수의 이야기가 지닌 형식 및 내용적 특성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함의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서전은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흥미로운 분야이다. 자서전은 흔히 ‘경계의 학문’이라고 한다. 문학과 역사, 혹은 픽션과 논픽션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서전은 1980년대 인문학 분야에서 관심을 보이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계 안팎으로 그 위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학, 탈식민주의, 포스트모던 비평이론들이 교차하는 문제들에 관한 사고를 촉발하는 특별한 장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서전 속 주제와 권력의 형성과정은 내러티브(narrative) 이론과 문화연구 관련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¹⁾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용학은 문화연구 및 비평이론들을 접목한 학제간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연구 주제 뿐 아니라 기존의 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문헌의 연구 방식 또한 다양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문간 경계를 완화하여 관점을 넓힘으로써 과거의 연구를 재조명하거나, 현 시점의 사회문화적 문제, 변화무쌍한 현대 공연의 특성 등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하였다. 무용수의 자서전은 전문 무용인부터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지만 일종의 융합적 연구 성향을 띠는 자서전 연구에서 춤을 주체적으로 두고 분석하는 것은 국내의 모두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수의 자서전을 의미 있는 사료로 보는 시각에서 한층 더 나아가 자서전에서 나타나는 자전적 글쓰기에 깊이 내재된 개인과 춤예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춤과 문학의 접목 형태와 그 가치를 밝히고, 나아가 현대 비평이론을 수용한 새로운 종류의 융합적 연구의 틀을 제시하여 국내 무용학 연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연구의 시기는 모던 발레와 현대발레의 가교 역할을 한 조지 발란신(G. Balanchine)의 시대로, 그와 함께 주요 활동을 하였던 발레리나 젤시 커크랜드(G. Kirkland)와 수잔 패럴(S. Farrell)의 자서전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함께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까지 발란신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에서 무궁무진하지만 그의 무용수에 대한 연구는 적다. 발란신과 연관된 발레리나의 자서전 역시 대부분 발란신의 업적이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찾는 문헌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난히 여성 무용수에 헌신하였던 발란신의 경우, 그의 뮤즈였던 발레리나에 대한 깊은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는 가치를 절하한다기보다는 아직 생존인물이고 여전히 활동 중이며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리나는 자서전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왜 자서전으로 이야기하는가? 나아가 현대 발레의 근간이 된 20세기 중반의 미국 발레는 내외부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고, 인식되고, 진화되었는가?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이슈를 반영하며 표출하는가? 무용평론가 르위스 시겔(L. Segal)은 미국

1) S. Smith and J. Watson(eds.)(1998), *Women, Autobiography, Theory*(Madison, WI: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5.

2) 자서전을 대상으로 한 최근 국내 선행연구는 크게 교육학, 심리학, 문학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왔다. 교육학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자서전 쓰기의 교육적 효과 혹은 이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작문 행위와 치유의 상관 관계 등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 영어, 불어, 독어 등 어문학 분야에서 행해진 연구는 각 문화권에 속한 신화자, 역사가, 문학가, 배우 등의 주요 서적을 대상으로 홀로코스트, 혁명, 중세 사회, 이민자 문화, 여성 문제 등 자서전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역사적식과 사회상을 탐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방대한 선행연구의 목록은 생략하였으며, 자서전 이론과 변천을 고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문헌은 이어지는 장에서 논의되어짐을 밝힌다.

발레계에서 패럴과 커크랜드는 흔히 백조/흑조의 이분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³⁾ 이는 개인이 지닌 외형이나 춤 스타일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두 발레리나가 출판한 자서전이 가져온 대중적인 파급력이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인문학에서 출발한 자서전 이론의 기원과 비평이론을 수용한 현대 자서전 연구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자서전이라는 장르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와 특성을 요약하고, 3장에서는 두 발레리나 자서전을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4장에서는 자서전 속 개인과 예술, 그리고 사회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발레리나의 자서전이 지니는 함의를 비평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자서전 이론과 변천

1. 자서전의 이론적 정의와 기원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자서전(*autobiography*)은 자기(*auto*), 삶(*bio*), 쓰기(*graphie*)라는 세 가지 의미가 결합된 용어이다. 즉, 개인의 삶을 기록한 것으로 삶과 기록의 주체가 동일한 문학작품을 말한다. 삶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는 것이며 가공적이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진, 인물, 장소, 시간 등 실제 자료들이 바탕이 되며 문학적 형태이긴 하지만 문학적(창의적) 기교 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실 기반의 명료한 서술이 요구되는 장르이기도 하다. 물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을 기록한 글들은 넘쳐나고 그 역사 또한 오래되었다. 그러나 위 내용과 형식적 요소들은 자서전을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고 학문적 틀에서 바라보게 한다. 자서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현대 서구에서 시작되었다. 일례로 세계 3대 자서전⁴⁾ 중 하나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A. Augustinus)의 『고백록 *Confessions*』은 신앙고백을 통해 자기 삶을 성찰한 최초의 자서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자서전적 의미 뿐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형태의 글이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모범이 되는 문헌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자신의 참회와 다짐을 담은 이 고백서를 자서전의 시초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오늘날 관점에서는 ‘자서전적 형식,’ 혹은 ‘자전적 성향’이 담긴 글의 원형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현대에 일컫는 자서전 연구는 좀 더 명확한 용어 정의와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출발한다. 자서전이란 용어는 1797년 언어학자 윌리엄 타일러(W. Taylor)가 *Monthly Review* 저널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어조로 기술하는 많은 작품들을 보편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용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⁵⁾ 그러나 이 신조어는 당시 사전적 용어 개발이라는 흐름에 편승해 탄생되었던 것이며, 용어의 구체적 의미나 상세한 작품 연구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자서전은 개인적 서사에서부터 전문적 ‘자서전체’ 작품에 관한 비평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논의가 시도된다. 학문적 탐구가 지니는 의의는 자서전의 모호한 영역을 쟁점화하여 장르로서의 특성을 밝히고

3) L. Segal(1990), *White Swan, Black Swan*, *Los Angeles Times*,
http://articles.latimes.com/1990-09-23/books/bk-1837_1_ballerinas-suzanne-farrell-conrad-ludlow-black-swan, 2014. 12. 10.>.

4) 세계 3대 자서전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장 자크 루소(J. J. Rousseau)의 『참회록』, 레프 톨스토이(L. Tolstoy)의 『나의 참회』로 알려져 있다.

5) C. Berryman(1999), *Critical Mirrors: Theories of Autobiography*, *Mosaic* 32(1), p.72.

비평의 토대가 되는 이론을 분화시킴으로써 문학적, 역사적, 심리적 관점 등 다양한 렌즈로 자서전을 조명하는데 있다.

초기 자서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조르주 귀스도르프(G. Gusdorf)는 1956년 자신의 에세이 『자서전의 현황과 한계 *Conditions and Limits of Autobiography*』를 통해 현대적 정의를 모색한다. 귀스도르프는 자서전을 전적으로 개인주의 및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서구의 장르이며 당대 가장 뛰어난 정신의 기술이라 정의한다.⁶⁾ 그에 의하면 자서전은 서구인 특유의 자의식이 요구되어지며,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서전에 나타나는 절대적 고백처럼 ‘내면으로 향하는 시선(inward-turning gaze)’이 자서전의 기원이자 기초라고 역설한다.⁷⁾ 자서전의 정의와 특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귀스도르프는 자서전 연구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받지만, 주체와 자의식을 강조하는 그의 시각은 자서전의 개인을 ‘서구 백인 남성’에 국한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한다.⁸⁾

현대 자서전 연구를 촉발시킨 또 다른 인물로는 프랑스 문학자 필립 르죈(P. Lejeune)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들어 르죈은 『자서전의 규약 *Le pacte autobiographique*』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서전을 문학의 한 장르로 인식하고, 자서전의 기본 정의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분명하게 규정한다. 르죈은 자서전을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로 정의한다.⁹⁾ 그는 매우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함과 동시에 나아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자서전이란 장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자서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1. 언어적 형태 a)이야기 b)산문으로 되어있을 것, 2. 다루어진 주제: 한 개인의 삶, 인성의 역사, 3. 작가의 상황: 저자(그 이름이 실제 인물을 지칭함)와 화자의 동일성, 4. 화자의 상황 a)화자와 주인공의 동일성 b)이야기가 과거 회상형으로 씌었을 것.¹⁰⁾ 르죈이 제시한 정의는 오늘날까지 대다수의 자서전 연구에서 마치 사전적 정의처럼 참조됨으로써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 현대 자서전 연구의 분야별 변천: 문학과 역사, 비평이론 그리고 무용학

귀스도르프, 르죈 등의 주요 이론은 자서전의 정의를 확고히 제시함으로써 연구 대상으로서의 자서전의 가치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자서전의 학문적 접근은 문학과 역사학에서 비평이론이 대두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활발해졌다. 자서전의 학문적 위치가 모호했던 것은 문학과 역사의 요소 양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을 기술한다는 것은 수필이나 회고록과 같은 문학적 형태를 띠지만 이는 실존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한 인물의 역사 혹은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난다. 자서전은 문학과 역사학 분야에서도 변방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 진술의 텍스

6) J. Olney(1980), *Autobiography: Essays Theoretical and Critical*(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28-29; S. Smith and J. Watson(2010), *Readi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2nd Edition*(Minneapolis, M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201.

7) L. Anderson(2011), *Autobiography, 2nd Edition*(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8-19.

8) Ibid., p.8; S. Smith and J. Watson(eds.)(1998), p.8; J. Rak(2004), Are Memoirs Autobiography? A Consideration of Genre and Public Identity, *Genre*(Fall/Winter), pp.312-313; D. J. Clandinin(ed.)(2006),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pp.120-121.

9) 필립 르죈(1974), 『자서전의 규약』, 윤진(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p.17.

10) 앞의 책.

트적 분석의 어려움이나 역사 기술에 있어 신뢰성의 문제 등이 이슈로 대두되며 20세기 중반까지도 자서전은 양쪽 학문에서 '초라한 양자(poor stepchild)'의 취급을 받으며 은근히 무시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¹¹⁾

20세기 후반 문학(언어)과 역사분야를 아우르는 비평이론은 자서전 연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특히 해체(deconstruction),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 실험적 서사(narrative experiments) 등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본격적으로 떠오른 비평이론들은 문학과 역사의 전통적 입장을 와해시키는데 기여한다. 다시 말하면, 두 학문분야의 화두인 허구(fiction)와 진실(true)의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자서전은 비평이론의 주요 주제로 부각되어진 것이다. 탈중심, 경계해체, 언어의 비결정성과 불확실성, '진정한 자아'에 대한 회의, 역사의 텍스트 비평 등은 고전적 장르로서의 자서전을 뛰어넘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1980년대에 들어 자서전 연구는 인종, 계급, 젠더 이슈 등에 주목한 개인적 내러티브 분석 등 여러 형태로 분화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접근은 르죈이나 귀스도르프와 같은 기존 권위 있는 자서전 이론을 비판하고 이들이 간과했던 관점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특히 시도니 스미스(S. Smith)와 줄리아 왓슨(J. Watson, 1998, 2010)은 포스트모던시대 여성 자서전 연구에 주목하여 그 시대적 배경과 내부적 관심 분야의 변천 등을 조명함으로써 비평이론과 함께 성장하는 자서전 연구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여기에서 '여성'은 당연히 생물학적 정의를 넘어 '주변부' 혹은 '소수 영역'에 위치하여온 사회문화적 주제들을 보다 폭넓게 포함시킨다. 즉, 인종과 계급, 직업과 학문 등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어온 범주를 넘나들며 여성의 글과 목소리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과 해석을 통해 자서전 연구의 변천을 탐색한다. 자서전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데어 스미스와 왓슨이 주목한 점은 우선 여성 자서전이 다루는 주제와 형식, 여성주체와 여성 경험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는 전통적인 초기 자서전 연구가 남성 위주 혹은 중성적 나(I)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인식을 비판하는데 의미가 있다.

여성 자서전이 현대의 산물은 아니다. 현대 자서전 연구는 수세기 전 출간된 여성의 자서전을 재조명하면서 그 시대의 특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하기도 한다. 비평이론을 접목한 여성 자서전 연구는 이미 앞서 언급한 문학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나아가 문화연구, 심리학, 페미니즘 등 비평이론과의 활발한 학문적 융합과 접목을 시도하여왔다. 이와 같은 비평적 연구는 자서전의 내용적 조명이 지니는 가치 뿐 아니라 형식, 가령 '고백'과 같은 양식은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불가능했던 것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지식/반지식(counter-knowledge)의 장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¹²⁾ 또한 자서전을 '출판'이라는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이는 자서전의 저자와 배경이 수세기 전의 과거든 현재이든 간에 현대에서 소비되는 자서전의 저자와 독자, 그리고 상업화의 이면을 논의함으로써 자서전의 자본주의 사회 속 위치 선점과 공론화 행위의 의미를 모색한다. 여성 자서전 연구와 이론의 구축은 그 시작에 있어 '여성'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페미니즘적 시각이 많이 부각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학의 범주 뿐 아니라 많은 인문, 사회 분야에서 학제간 장벽을 넘어 '여성'과 '차이'의 문화적 구축이나 문화적 산물로서의 여성에 대한 비평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신문학비평, 포스트모던 비평이론 등이 자서전 연구의 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1990

11) C. Berryman(1999), pp.71-72.

12) S. Smith and J. Watson(eds.)(1998), p.84.

년대 들어 무용학 역시 비평이론들을 근거로 하는 문화연구에 영향을 받아 학문적 지평을 넓혀 왔음에도 본 연구의 주제인 자서전과 관련된 연구는 타 학문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무용수의 자서전은 1990년대 이전부터 많이 출간되어 왔으며 본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리디아 소콜로바(L. Sokolova, 1960), 브로니슬라바 니진스카(B. Nijinska, 1981), 알렉산드라 다닐로바(A. Danilova, 1986), 마고트 폰테인(M. Fonteyn, 1976) 등 다수의 자서전이 학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주로 무용수가 속한 시대나 함께 작업한 안무가를 이해하기 위한 사료 혹은 ‘가벼운’ 문학의 양분야로 활용되어왔을 뿐 인문학 분야처럼 그 자서전의 저자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된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 엘렌 고엘너(E. Goellner)와 재클린 쉬어 머피(J. S. Murphy)의 편저서(1994)는 춤과 문학, 두 분야의 관심 주제들을 접목시키는 방법론을 여러 사례로 제시하며 현대 무용학에서 글쓰기의 효용과 영역의 확장을 감지하게 하였다. 무용학자 앤 쿠퍼 알브라이트(A. C. Albright, 1997)는 이사도라 던컨의 자서전과 포스트모던 작업을 비교하여 ‘자기(the self) 혹은 여성’을 기록하는 상이한 방법들을 탐색하고 있으며,¹³⁾ 안젤라 맥로비(A. McRobbie)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대중 춤소설(dance fiction)에 나타나는 내러티브에 주목하여 춤추는 몸이 과도한 열정의 장소, 혹은 계급 이동의 욕망으로 대변되는 점을 논의하였다.¹⁴⁾ 그리고 안무가이자 무용학자인 레슬리 새틴(L. Satin)은 문학이론, 여성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메레디스 몽크(M. Monk)의 작업 속에 내재된 자서전의 개념과 대안적 형태에 대해 연구하였다.¹⁵⁾ 엘리슨 보리(A. Bory, 2008)는 자서전 이론과 현대 비평이론이 주목하는 정체성 문제를 현대춤 작업에 대입하여 개인적 경험, 자아 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자서전 연구와의 접점을 찾아보면 자서전 자체의 분석보다는 학제간 연구를 기조로 하여 문학적 요소로서의 자기표현, 내러티브, 자전적 텍스트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는 지금껏 살펴본 이론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활성화된 문화연구의 틀에서 자서전 연구의 후기 성향, 즉 자전적 요소의 전략적 활용이 무용학에 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타 인문학 분야와는 달리 무용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무용자서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문학 혹은 역사적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한 층 더 나아가 비평적 시각으로 내재된 의미를 조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두 가지 발레리나의 자서전을 분석하여 대상 자서전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세부적으로 살펴 본 후, 자서전이 표방하는 ‘자기-서사’가 주체와 예술, 그리고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I. 『Dancing on My Grave』와 『Holding On to the Air』 분석

1. 형식적 측면

키크랜드와 패럴의 자서전은 양 쪽 모두 300페이지 내외로 비슷한 분량이다. 키크랜드는 당시 그녀의 남편이자 시인 그레고리 로렌스(G. Lawrence)를, 패럴은 New York City Ballet 무용수 출신 작가 토니 벤틀리(T. Bentley)를 보조 작가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Dancing on My Grave』(이하 DMG)는

13) J. C. Desmond(ed.)(1997), *Meaning in Motion: New Cultural Studies of Dance*(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179-205.

14) Ibid., pp.229-230.

15) G. Morris(ed.)(1996), *Moving Words: Re-Writing Dance*(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21-140.

최초 출판년도인 1986년 이후 출판사가 두 번 변경되어 출판되었으나 표지 사진을 제외하고는 차이점이 없지만, 『Holding On to the Air』(이하 HOA)의 경우 1990년 초판 이후 2002년에 저자의 새로운 서문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약 2페이지 반 분량의 추가된 서문은 초판 이후 패럴 자신의 신변 변화, 즉 은퇴와 이후 다방면의 행보 등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책이 출판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독자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표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우선 두 자서전 모두 겉표지는 무대의상과 토슈즈를 갖춰 입은 저자의 흑백 무대 사진으로 책의 정체성을 가장 시각적으로 규정한다. ‘자서전’이라는 소재목을 명시하고 있지만 표지의 제목은 ‘내 무덤 위에서 춤을’이나 ‘공중에 머무르며’와 같이 시적, 예술적 상상을 전하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표지에서 제목은 사진과 결합되어 한 권의 책을 상징적으로 명명하고 이 시적인 제목은 여성적 취향과 감성으로 자연스럽게 규합된다. 그 외 평문의 문구를 인용함으로써 흥미와 신뢰감을 더한다. 커크랜드의 경우, “살아있는 악몽이 된 동화 같은 성공 이야기,” 그리고 패럴의 경우, “비범하게 감동시키는 이야기(뉴욕타임즈 북리뷰)”라고 명시되어있다. 두 자서전 모두 ‘이야기(story)’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자서전의 성격을 드러낸다.

표지에 이어지는 주요 구성요소는 목차이다. 목차의 사전적 정의는 “책의 항목, 제목, 쪽 번호를 차례대로 적은 목록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알거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연히 목차 자체가 자서전만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목차는 곧 내용과 보다 결부되어지는 것이며, 내용에 대한 관심을 더욱 촉발시키고 내용의 핵심과 의도를 유추해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또 이는 책 내용을 완전히 습득한 후 보다 풍부한 의미로 확장 혹은 재해석 될 수 있는 상징적 문장으로 가득한 장이다. 자서전이 인물의 일생을 스스로 쓴 일종의 전기 형식이라 할 때, 출생에서부터 집필 시점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기술하는 형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서전의 기본 골격이 된다.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자서전은 자신의 기억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 보다 특별한 기억이 저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동시에 자서전의 출판 동기와 목적이 된다. DMG와 HOA는 과거→현재로 이어지는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만, 목차는 방대한 기억 중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사연의 성향을 일차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우선 두 자서전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DMG와 HOA의 목차

제 목	Dancing on My Grave (DMG)	Holding On to the Air (HOA)
목차	1장 보이지만 들리지 않는 2장 고양이의 요람 3장 아픈 신(God) 4장 깨진 거울 5장 뜨거운 목욕에서 냉전으로 6장 배신과 망명 7장 철의 장막 8장 미친 장면 9장 보이지 않는 병	극장 무대 1부 1장 신시내티 2장 오디션 3장 입단 4장 무브먼트 5장 속성 수업

〈표 1〉 계 속

제 목	Dancing on My Grave (DMG)	Holding On to the Air (HOA)
목 차	10장 약물, 그에게 진절머리 난 그녀를 중독시키다 11장 경계성 인격 케이스 12장 내 무덤위에서 춤을	2부 6장 돈(Don)과 돌시네아(Dulcinea) 7장 유럽식 정찬 8장 귀중한 존재 9장 다이아몬드 10장 순회하는 스텝 3부 11장 대립 경로 12장 망명 13장 거울을 통해 4부 14장 미래로의 회귀 15장 그저 춤추며 16장 공적 기도(prayer) 17장 개인 기도 18장 환희 19장 시작 막간

두 목차는 먼저 분량과 형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DMG의 경우 출생, 유년시절, 청년기, 성인기 등 개인의 역사가 누적되는 연대기적 흐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비교적 간단한 12개의 장면이 콜라주처럼 서로간의 인과관계나 이야기의 전개를 유추하기는 쉽지 않게 배치되어있다. 또한 발레리나라는 저자의 정체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아픈, 거울, 미친, 병, 약물, 경계성, 무덤’ 등 마치 의학적, 심리적 이벤트를 암시하는 용어들을 사용한 문장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자서전을 인생 기록(life writing)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DMG는 저자의 삶 중 어느 특정 측면을 조명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반면 HOA의 목차는 DMG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19장이라는 긴 구성은 4부로 나뉘어 시간적 흐름을 보다 극적으로 분류한다. 다시 말하면 각 부는 전형적인 서사 구조인 입문, 성장, 갈등, 회복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오디션, 입단, 돈과 돌시네아, 다이아몬드’ 등 무용수¹⁶⁾라는 저자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DMG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두 자서전의 본문에는 인용, 대화, 서신, 사진들이 다량 포함되어있다. 특히 유명 예술가의 철학에 관한 인용, 공연 비평, 주요 인물(스승, 동료 등)과의 대화 및 서신이나 개인적 사진은 객관적 자료로 내용의 신뢰형성에 큰 기여를 한다. 그리고 어조와 맥락에 따라 저자의 관점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무용단과 당대 예술계 속에 놓인 사회적 관계 및 상황을 폭넓게 인식하게끔 해준다.

16) 돈과 돌시네아, 다이아몬드 등은 발란신의 작품 「돈키호테」와 「보석」을 떠올리게 하며, 패럴은 각 장의 제목에 담긴 의미와 함께 관련 작품들의 탄생, 작업 과정, 느낌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S. Farrell and T. Bentley (2002), *Holding On to the Air*(Gainesville, FL: University Press of Florida), pp.106-123, pp.160-165.

2. 내용적 측면

가. 젤시 커크랜드의 고백

DMG는 1970년대 스타 발레리나의 개인적 고백이 주를 이룬다. 앞서 목차에서도 일차적으로 드러나듯 커크랜드 자신이 겪어온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극작가 아버지와 배우 어머니로부터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음에도 지독한 알코올중독자였던 아버지로 인해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커크랜드는 이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어두운 과거, 치열했던 순간들을 적나라하게 풀어낸다. 발레리나의 화려한 활동 경력이나 예술적 성취를 위한 순수한 노력을 읽음으로써 어떤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고자 하는 독자에게 이 책의 내용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한 발레리나의 자서전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도발적이고 비밀스러운 사건과 감정이 여느 예술가의 자서전과는 달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 가족, 친구, 연인,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라고 평가될 만큼 이 책은 커크랜드의 '국민적 명성'에 버금가는 어두운 이면을 주제로 삼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인상으로 시작되는 자서전은 유년 시절 American Ballet School에서 수학하고 이후 십대의 나이에 입단한 New York City Ballet(NYCB), 그리고 성인이 된 후 몸담게 된 American Ballet Theatre(ABT)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갈등은 크게 전반부에는 발란신 발레에 대한 경험과 숙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ABT로 옮긴 후 심화된 약물 중독과 이에 따른 정신적 붕괴가 주축을 이룬다. 우선 초창기 발란신의 발레리나답게 발란신의 예술 철학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이고 분명하다. 나아가 재능 있는 무용수로서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공연 경험과 찬사는 커크랜드에게 큰 자부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그러나 커크랜드는 '완벽,' '시각적 미'를 추구하는 발란신의 신념과 훈련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체적 고통, 나아가 자기 제어의 근원을 찾는다.¹⁷⁾

두 번째의 갈등은 무용수로서의 생활과 작업 속에서 안무가의 이상을 따르기 위한 피나는 자기 제어와 노력이 어느새 무용수의 범주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자기 파괴를 수반하는 극단으로 치달게 되는 점을 그린다. 커크랜드는 오랜 기간 자기 내면에 잠재된 고통을 되새기며, 이는 무용수로서 지니는 자기 내면의 욕구와 보편적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의 충돌을 그 근원으로 인식한다.¹⁸⁾ 발란신에 대한 반감, 경쟁으로 점철된 위계 사회를 엄격히 따르는 발레단의 생활, 자신의 이상형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와의 오랜 애증관계 등에서 비롯된 고통과 혼란은 옳지 않은 선택을 가져온다. 아름다운 프리마 발레리나의 삶과는 배치되는 반복적 섭식 장애, 약물 중독, 성격 장애, 섹스 중독 등의 질병을 앓고 신음하는 모습은 솔직하고 때론 과감하게 자서전의 중반부부터 전개되어진다. 도덕적,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비정상적 일탈들은 발란신을 떠나 ABT에서, 그리고 패트릭 비셀(P. Bissell)과 같은 유명 발레단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되었으며 발레단은 당시 만연했던 약물 문제를 숨기기 급급했기에 충격으로 다

17) 커크랜드는 발란신의 발레리나 시절, 신체 검열에 가까운 발란신의 극단적 언행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예를 들면 발란신은 그녀에게 상체는 '반드시 뼈가 보여야 할 정도'로 말라야하고, 수시로 몸무게를 체크하며 늘 '적게 먹을 것'이 아닌 '먹지 말 것'을 강조했다. '해골 같은 체격(skeletal frame)을 선호하는 발란신의 취향은 이후 오랫동안 미국 모든 발레단과 발레 학교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일종의 '강제 수용소(concentration camp)'와도 같은 그의 미학은 다이어트 약의 남용, 영터리 다이어트 요법, 결국엔 거식증으로 이끌어졌다고 토로한다. G. Kirkland and G. Lawrence(1986), *Dancing on My Grave*(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Inc.), pp.55-56.

18) Ibid., pp.179-180.

가온다. 그리고 남편 그레고리 로렌스를 만나면서 자각과 반성, 변화를 모색한다. 자서전 역시 이 과정의 산물이다. 자서전은 시종일관 무용수의 활동과 이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생생히 전하면서도 마지막 부분은 희망적인 뉘앙스로 끝맺음한다.

나. 수잔 패럴의 회상

HOA는 수잔 패럴의 화려한 성공기이며 대가의 뮤즈로서 인정받아온 긍지와 자부심이 밑바탕을 이룬다. 1945년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패럴은 공장 노동자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그리고 세 자매의 막내로 자랐다. 10살 때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게 된 패럴 자매들은 넉넉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과 헌신으로 안정된 유년기를 보낸다. 어머니는 춤, 피아노 등 과외를 통해 자식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더 많은 노동으로 당시 신시내티의 유명한 가톨릭 학교에 세 딸을 장학생으로 입학시키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일찌감치 발레의 재능을 간파했던 패럴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의 무용단을 찾았다. 그러던 중 발란신의 NYCB는 오디션 끝에 패럴에게 전액 장학금을 약속하게 되었고 패럴의 가족은 뉴욕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자서전의 초반부는 가정형편, 학교, 오디션 등 발레 경력을 시작하게 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후 NYCB에서의 경험과 활동이 상세하게 이어진다. 1년의 발레학교를 거쳐 십대의 나이에 발레단에 들어간 패럴의 비범함은 발란신의 규범에 맞는 발레리나로 성장하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보인다. 리허설, 공연 등 많은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는데 있어 발란신은 언제나 그 중심에 있다. 발란신의 작품을 통한 데뷔, 자신을 위해 만든 발란신의 첫 작품, ‘모든 것’이 자신과 결부된 작품 등 자서전은 중반 이후까지 발란신과의 작업 속 자신의 독주를 그린다. 안무가와 발레리나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작업은 때론 발레단 속 스캔들로 느껴질 만큼 ‘사랑’이란 뉘앙스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자서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발란신과의 작업은 위대한 안무가의 안목과 철학 뿐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뮤즈로 자리매김한 자신에게 전달되고 변환되어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¹⁹⁾

자서전은 풍부한 예술적 과업을 쌓아나가는 안무가와 무용수의 협업이 주를 이루며 전개되지만 급작스런 변화를 통해 드라마적 요소 또한 부각되고 있다. NYCB의 독보적 발레리나였던 패럴의 일생에서 큰 전환점은 바로 발레단 동료 폴 메지아(P. Mejia)와의 결혼이다. 이는 발란신과의 공적, 사적 관계를 깨는 사건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발레단을 관두고 유럽으로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 6년간 모리스 베자르(M. Béjart) 발레단에서 활동을 하던 패럴은 다시 발란신의 품으로 돌아와 예전의 왕성한 활동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되고 1986년 발란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뮤즈로 남는다. 발란신 후임으로 예술감독을 맡은 피터 마틴스(P. Martins)에 의해 해고를 당하고 무대를 은퇴하면서 그녀의 긴 여정을 그린 글은 끝을 맺는다.

19) 일레로 패럴은 발란신이 자신을 염두에 두고 안무한 「돈키호테」의 구상, 리허설 작업 과정 및 대화를 상세히 기술하며, 어떻게 이 작품이 ‘균형이 깨진(off-balance)’ 춤을 습득하고, 발레리나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발란신의 발레리나로 변모하게끔 하는 통과의례와 같은 작품인지를 말한다. S. Farrell and T. Bentley(2002), pp.106-111. 참고로 패럴이 자서전에서 한 장(chapter)을 할애하는 이 「돈키호테」는 1965년 초연된 발란신의 안무작으로 돈키호테가 그의 이상향 돌시네아를 찾아 해매는 이야기이다. 발란신이 돈키호테 역을, 패럴이 돌시네아 역을 맡았으며, 이는 19세기 마리우스 프티파(M. Petipa)의 「돈키호테」와는 무관하다.

IV. 발레리나 자서전의 의미와 가치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자서전의 형식은 자전적 글쓰기, 허구와의 혼합, 다매체적 접근 등을 전략적으로 취하며 전통적 자서전의 본질에서 끊임없이 분화되고 있다. 이는 다학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읽기와 쓰기를 가능케 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 연구 대상인 두 자서전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자전적 요소를 활용하는 실험적 텍스트가 아닌 전통적 정의에 충실한 초기 자서전의 모습으로 출간되어진 것이다. 자서전의 골자인 삶을 기술하는데 있어 형식상 두 자서전은 공통적으로 출생부터 현재까지 시간적 흐름에 순응하는 연대기적 서술을 따른다. 르윈의 사전적 정의처럼 고유명사의 동일성, 즉 저자와 화자, 주인공이 일치하는 과거형의 ‘자기-서사’를 통해 저자는 주체를 구성하고,²⁰⁾ 예술과 사회에 대한 시선을 끊임없이 투영한다. 본 장에서는 자서전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어 특히 그 주체는 단순히 일인칭의 ‘나’에서 나아가 ‘기억, 경험, 정체성, 공간, 체화, 행위력’의 요소가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점을 주목한다.²¹⁾ 이러한 요소들을 규합하면서 두 자서전은 표현에 있어 다른 행위를 취한다. 결과적으로 DMG는 내면적 고백형(confessional mode)를, HOA는 외면적 회상형(retrospective mode)을 주요 서술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첫째, 내면적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커크랜드의 자서전은 이제껏 살아온 삶의 굴곡, 특히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투영해낸다. 내용상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경험해온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경험의 이면 혹은 자신의 심적 상황이 공유되며 기술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을 전제로 하지만 주관적인 감정적 행위를 동반한다. 비밀의 토로, 감정의 표출, 권위나 규칙에 대한 반감, 육체적 고통 등 복잡한 감정들이 텍스트화 된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의 행위는 강한 어조로 정당함을 호소하기도 하며,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는 생활을 드러내는 고백은 후회와 반성으로 다가온다. 자서전의 전반부인 NYCB에서의 활동은 특히 발란신과의 불화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발란신의 권위에 눌린 악몽에 관한 묘사나 구소련의 순회공연에서 발란신에 의해 처음 접한 부적절한 악물에 관한 고발 등이 그것이다²²⁾ 자서전은 절반 이상이 발란신의 베이비 발레리나가 아닌 ABT 프리마 발레리나로서의 커크랜드 자신을 반영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시종일관 주된 정서를 이루는 ‘고통’의 근원은 어린 시절 고착된 발란신의 교수법과 맞닿아 있기에 발란신은 자서전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인물로 언급된다. 특히 표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살바토레 비가노(S. Viganò), 장 조르주 노베르(J. Noverre)의 사상, 그리고 정신 치료의 과정에서 반추하는 프리드리히 쉴러(F. Schiller), 아우구스티누스의 계보를 잇는 성찰적 자서전 쓰기의 의미 기술 등은²³⁾ 외형적 신체성을 강조하는 발란신의 미학과 대비되는 것으로 커크랜드를 사로잡았던 고뇌의 본질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수많은 일화의 진술과 더불어 DMG에서 사용된 다양한 사진들은 어두운 기억과 굴곡진 심경의 ‘나’를 시각적으로 엿볼 수 있게 한다. 사진은 집에서부터 무대까지 여러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이미 방대하게 서술되어지고 있는 텍스트와 결합하여 각각의 사진은 하나의 장면 이상의 정보를 준다. 무용

20) 이기야(2008), 자서전 이론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p.284.

21) S. Smith and J. Watson(2010), p.21.

22) G. Kirkland and G. Lawrence(1986), pp.86-87, p.96.

23) Ibid., p.74, p.281, p.284.

수가 되기 이전의 어린 시절 사진, 발레 학교 시절의 춤에 대한 집착, 히피세대의 사회적 이미지, 바리시니코프와 다정했던 순간, 거장 안무가들의 작품 속 모습 등은 발레리나로서의 눈부신 영광의 순간 보다는 자신의 성향과 삶의 변환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를테면 건조한 가정환경, 발란신의 베이비 발레리나로서의 외형적 성취와 육체적 고통, 자유분방한 일탈이 터져 나왔던 1970년대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망명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바리시니코프와의 깊은 교감, 발란신을 넘어 타 안무가와의 교류 등이 시·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목의 ‘무덤’은 책의 말미에 그 의미를 다시 수렴한다. 이는 무용수로서의 성공과 좌절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죽음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었던 과거 시간들의 집약체로 보인다. 그 무덤위에서, 그 무덤을 기억하며 다시 마음을 다지는, 그리고 이 자서전 이후의 춤과 삶에 대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나는 앞으로 무엇이 닥치든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나의 무덤, 그리고 발레리나와 예술가로 내가 태어난 곳을 보아왔다. 이 시즌이 나의 마지막 시즌이겠지만 몸이 굳은 뒤에도 내 스텝은 계속될 것이다. 춤은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나도 그럴 것이다. 나와 춤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묘비명, 나의 기도, 나의 마지막 몸짓이 되게 하자.²⁴⁾

둘째, 외면적 회상이라는 관점에서 패럴의 자서전은 자신의 경험과 업적을 객관화하는데 집중한다. 객관화에 가장 큰 중심은 ‘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삶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발란신은 패럴의 자서전에서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발레리나로서의 삶에 초점을 둔 패럴의 자서전은 발란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예술적 관계까지 포괄하여 마치 발란신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패럴의 위상에서 알 수 있듯 NYCB에서 그녀가 걸어온 모든 궤적들은 발란신이 이루어 온 업적과 함께 하며 따라서 자서전의 주체는 ‘권위 있는 나(authoritative I)’의 전형을 보여준다.

앞서 목차의 형식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용수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구성은 자서전 전체를 마치 하나의 ‘인생 공연’처럼 풀어나감으로써 저자 자신을 특정 주체로 설정하고자 하는 의도와 욕망이 포착된다. 일반 자서전의 서문에 해당하는 첫머리를 ‘극장 무대(Avant Scène)’라는 전문 용어로 명명하며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포함하여 자서전의 방향을 암시한다. 즉 “*Meditation*은 우리 관계의 시작이며 20년 후 *Mozartiana*는 클라이막스였다. (중략) 발란신은 발레뿐만 아니라 우리(발란신과 패럴)의 삶을 안무하였다”로 관계를 강조하며 서두를 여는 것이다.²⁵⁾ HOA는 DMG처럼 연대기적 구조를 따르지만, DMG와는 달리, 장편의 발레공연처럼 발란신 발레리나로서의 삶의 여정을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단계적으로 무대화한다. 이는 철저히 유년시절과 발란신의 견습생으로서의 생활이 초반부(1부)를 이루고, 점차 발란신 작품의 주요 역할로 도약하고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두 번째 무대(2부)를 형성하고, 발란신과의 결별이 갈등을 이루는 세 번째 무대(3부)를 거쳐, 다시 발란신의 영역에서 안식을 취하는 마지막 무대(4부)가 만들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발란신과의 삶’을 명시하며 자서전의 첫 무대를 설정한 것처럼 자서전의 끝은 한 번 더 전문 용어인 ‘막간(Entr’acte)’이라는 소재목을 붙여 마무리한다는

24) Ibid., p.360.

25) S. Farrell and T. Bentley(2002), p.10.

점이다. 여기에서 패럴은 서문에 화답하듯 다음과 같이 발란신의 ‘장미 은유(rose metaphor)’²⁶⁾를 연상시키는 글로 마무리한다.

사람들은 내 삶에 셀 수도 없이 많이 올랐던 이 무대가 이젠 마지막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나고 물었다. 나의 온 경력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 가느냐고? 그렇지 않다. 이는 추억이 아닌 찬사이다. 나는 무도회장의 신데렐라 같았고 삶 속에서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이는 가시 없는 장미였다. 그날 밤 Rosenkavalier 왈츠를 춤추면서 나는 물론 Mr. B.-약간의 압박, 부재의 파트너, 내 가운 속에 숨겨진 은빛 장미-를 생각했다. 그 때에도 말했던 것처럼 나의 마지막 인사는 언제나 그를 향할 것이다.²⁷⁾

미국 발레계에서 관객들은 패럴이라는 발레리나의 존재를 통해 발란신의 예술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친밀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종종 예술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 확대되어 세간에 오르내렸지만 분명한 것은 없었고 패럴은 다음과 같이 ‘장미’의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그들의 관계를 세속화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사랑 그 이상이다. (중략) 사람들이 나와 발란신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발란신이 장미의 의미에 대해 묻지 말라 했던 것처럼, 어떤 것들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당신이 그것을 분석하려 든다면 이는 망가져 버릴지도 모른다.²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DMG에 비해 HOA에 삽입된 사진들은 패럴 자서전의 지향점을 지지한다. DMG의 이미지들은 커크랜드 자신의 다양한 생활을 담고 있는 반면 HOA는 몇몇 어린 시절 사진을 제외하고는 패럴과 발란신의 모습이 대부분이다. 무용수로서의 패럴, 안무가로서의 발란신이 기본 구조이며, 그 돈독한 관계를 증명하는 공연, 작업 및 일상의 모습으로 채워져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HOA는 발란신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을 통해 창조된 권위 있고 헌신적인 발레리나라는 주체가 강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서전의 특성상 사적인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으며 HOA도 예외는 아니다. 독자는 HOA를 통해 여태껏 알지 못했던 발란신과 패럴의 친밀한 관계를 어느 책보다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패럴은 발레리나로서의 권위적 주체 이미지를 영리하게 고수한다. 디테일한 사적 감정의 묘사는 어린 시절의 카톨릭 교육의 부각과 독실한 믿음을 지닌 성스러운 여성이라는 뉘앙스를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그 강도가 희석된다.²⁹⁾ 그리고 현재까지의 삶을 사건(작업) 중심으로 기술하고 마치 하나의 기나긴 공연으로 비유하여 엮음으로

26) 발란신은 종종 여성무용수를 꽃에 비유하며 러시아 시문학 운동 아크메리즘의 ‘장미 은유’와 일치하는 견해를 드러낸다. 19세기 아크메리스트들이 “장미는 꽃잎, 향기, 색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 그 아름다움이 신비스러운 사랑이나 다른 어떤 것의 연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들의 예술관을 상징적으로 역설하듯, 발란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무용수는 그저 꽃이다. 꽃은 어떠한 문자적인 의미 없이 자라난다. 그들은 그냥 아름답다. 우리는 꽃과 같다. 꽃은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언급한다. Y. Roh(2015), A Study of Acmeism in George Balanchine’s Jewel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53(2), p.60, p.67.

27) S. Farrell and T. Bentley(2002), p.307.

28) I. Brown(2006), A passionate love letter re-opened, *The Telegraph*, <<http://www.telegraph.co.uk/culture/theatre/dance/3653974/A-passionate-love-letter-re-opened.html>, 2015. 2. 24.>.

29) J. Acocella(1990), Dancing for Balanchine,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http://www.nybooks.com/articles/1990/10/11/dancing-for-balanchine/2015. 2. 2>>.

써 무대 위 발레리나로서의 자부심을 극대화한 것이 HOA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어느 자서전이든 사건과 감정, 즉 객관과 주관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전적으로 내면적이거나 외면적일 수는 없다. 앞 장의 자서전 이론 형성과 발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서전은 다원적인 ‘나’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글을 쓰는 나 - 대상이 되는 나 - 읽는 나’가 얽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성이 자서전을 전통적 모습에서 자전적 글쓰기, 자전 소설 등으로 변모시키기도 한다. ‘나’라는 용어는 문법상 일인칭을 의미하지만 자서전은 글을 쓰는 주체 역시 ‘나’이기에 자서전의 ‘나’는 일인칭과 삼인칭의 영역을 넘나든다. 따라서 실제 나에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가 만든 일종의 허구(3인칭)의 인물이 탄생하며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목표가 설정되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DMG는 고백의 형식을 빌려 내면의 반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HOA는 기억을 통해 개인의 역사를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대와 인물을 공유하면서도 상반된 시각이 투영된 이 두 자서전은 기존 무용사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훨씬 방대한 시대적 자료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두 자서전 비교 연구는 수많은 일화의 진실성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두기 보단 동시대를 공유하는 두 저자의 기억과 경험이 어떠한 주체를 형성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어 소통하는가를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영향력 있는 발레리나의 자서전을 통해 두 저자는 흑과 백, 혹은 성공과 실패의 맥락에서 평가되기도 하지만 양분법적 평가는 훨씬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커크랜드의 상처와 실패는 혼란스러운 주체를 형성하여 아름다운 발레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준다. 이는 완벽한 예술미를 추구하는 사회적 담론의 비판을 이끌어내며, 신고전주의 발레가 지닌 여성성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비평적 접근을 가능케 한다. 발란신에 대한 일방적 조소가 아니라 발란신과 당대 대등한 활동을 펼친 안무가 제롬 로빈스(J. Robbins), 앤터니 튜더(A. Tudor) 등과의 작업을 통해, 더 거슬러 올라가 노베르와 같은 이론가들의 사상을 통해 발레의 의미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자세는 안무가의 철학이 무용수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발란신에게서 보았던 ‘완벽’은 예술적 성취라는 영광보다는 개인에게 강박과 불안으로 귀착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는 발란신 혹은 커크랜드 개인의 문제에서 나아가 현대 발레에 내재된 보편적 담론-젠더화, 신체성, 심리성-등을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예가 된다. 커크랜드가 서사화한 기억은 개인적으로 자기 치유와 반성을 이끌어내는 주체를 재현하지만, 발레리나의 일탈에서 나아가 대중에게 발레 예술에 대한 비판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패럴이 서사화한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현 무용사에 기술된 발란신의 업적을 더 풍부하게 해줄 자료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보석」, 「돈키호테」 등 유명 작품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품까지 그 제작 과정에 대한 기술과 움직임에 관한 대화는 발란신의 안무철학을 보다 깊이 가늠할 수 있는 생생한 자료가 된다. 이는 주체를 ‘축복받은 뮤즈’로 재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안무가와 무용수 양 방향의 헌신이 가져다주는 예술적 성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발란신이 언제나 패럴을 그의 뮤즈로 추앙하였듯이, 패럴 역시 자서전을 통해 발란신

에게 일종의 보답을 하고 있다. 키크랜드의 거침없는 토로와는 달리 패럴이 기억하는 어떠한 사적인 일화도 발란신의 명성을 흐드는 경우가 없다. 이러한 패럴의 시각은 디테일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발란신을 다소 미스터리한 인물로 남게 하고, 그들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집중한다. HOA는 패럴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여성 혹은 발레리나로서의 주체적인 삶 보다는 그녀의 삶이 곧 발란신과의 삶을 의미하며 그 관계 속에서 주체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서전 연구는 인문학 분야에서 문학, 역사, 여성학, 사회학, 심리학 등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전형적인 발레리나의 자서전은 주로 대중적, 상업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자기 서사를 활용한 자전적 텍스트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배경과 논의는 무용학의 대상과 주제를 넓히고 타 학문과의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동시대 영향력 있는 두 자서전 비교에 한정되지만, 분석 내용은 기존 서양 무용사에서 다루어진 안무가의 성향, 활동, 주요 작품 위주의 기술 및 평가에서 나아가 여성, 사회, 인권 등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시키고, 자전적 요소를 활용한 무용 문헌들의 후속 연구에 기여하는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필립 르죈(1974). 『자서전의 규약』. 윤진(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 Anderson, Linda(2011). *Autobiography: The New Critical Idiom, 2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 Clandinin, D. Jean(ed.)(2006).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 Danilova, Alexandra(1986). *Choura: The Memoirs of Alexandra Danilova*. New York: Knopf.
- Desmond, Jane C(ed.)(1997). *Meaning in Motion: New Cultural Studies of Danc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Farrell, S. and T. Bentley(2002). *Holding On to the Air*. Gainesville, FL: University of Florida.
- Fonteyn, Margot(1976). *Margot Fonteyn: Autobiography*. New York: Knopf.
- Kirkland, G. and G. Lawrence(1986). *Dancing on My Grav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 Morris, Gay(1996). *Moving Words: Re-Writing Dance*. New York: Routledge.
- Murphy, J. S. and E. W. Goellner(eds.)(1995). *Bodies of the Text: Dance as Theory, Literature as Danc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Nijinska, Bronislava(1981). *Bronislava Nijinska: Early Memoir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Olney, James(1980). *Autobiography: Essays Theoretical and Critica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ith, S. and J. Watson(eds.)(1998). *Women, Autobiography, Theory*. Madison, WI: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_____ (2010). *Reading Autobiography: A Guide for Interpreting Life Narratives, 2nd Edition*. Minneapolis, M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okolova, Lydia(1960). *Dancing for Diaghilev: The Memoirs of Lydia Sokolova*. San Francisco, CA: Mercury House.
- Bory, Alison Lee(2008). *Dancing with My Self: Performing Autobiography in (Post)Modern Dance*. Ph.D. Dissertation, unpublished.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이가야(2008). 자서전 이론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3: 283-311.
- Berryman, Charles(1999). Critical Mirrors: Theories of Autobiography. *Mosaic*, 32(1): 71-84.
- Rak, Julie(2004). Are Memoirs Autobiography? A Consideration of Genre and Public Identity. *Genre*, 36(Fall/Winter): 305-326.
- Roh, Youngjae(2015). A Study of Acmeism in George Balanchine's Jewels.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53(2): 57-74.
- Acocella, Joan(1990). Dancing for Balanchine.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http://www.nybooks.com/articles/1990/10/11/dancing-for-balanchine/>, 2015. 2. 2.>.
- Brown, Ismene(2006). A Passionate love letter re-opened. *The Telegraph*. <<http://www.telegraph.co>.

uk/culture/theatre/dance/3653974/A-passionate-love-letter-re-opened.html, 2015. 2. 24.>.
Segal, Lewis(1990). White Swan, Black Swan. *Los Angeles Times*. <http://articles.latimes.com/1990-09-23/books/bk-1837_1_ballerinas-suzanne-farrell-conrad-ludlow-black-swan, 2014. 12. 20.>.

논문투고일 2017. 2. 14.
심사일 2017. 2. 27.
심사완료일 2017. 3. 8.

A Portrait of Glory or Wounds: Reading Ballerinas' Autobiographies

Roh, Youngjae

Sports Science Research Institute,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ocio-cultural significance of autobiographical writings, based on dancers' experiences and memories, by analyzing the autobiographies of two ballerinas, Gelsey Kirkland and Suzanne Farrell. From the contemporary perspective of autobiography, this study explains the formation of a metaphoric autobiographical self, the meaning of writing strategy, and the diverse socio-cultural issues raised by the authors, rather than regarding autobiography as merely a historical source or the art of literature. In conclusion, Kirkland adopts the confessional mode of writing as a vehicle for therapeutic work, and Farrell uses the retrospective mode of writing that fully reflects her authority and glorious time in the ballet world.

Keywords: Autobiography(자서전), Autobiographical writing(자전적 글쓰기), Ballerina's autobiography(발레리나 자서전), Gelsey Kirkland(젤시 커크랜드), Suzanne Farrell(수잔 패럴)